

보도시점 : 2025. 9. 29.(월) 11:00 이후(9. 30.(화) 조간) / 배포 : 2025. 9. 29.(월)

## 2025 추석 특별교통대책

# “모두가 편안한 귀향길을 지원하겠습니다”

-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11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 지정
- 고속도로 통행량 추석 당일 최대(667만 대), 4일간(10.4~7) 통행료 면제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추석 명절을 맞아 10월 2일(목)부터 10월 12일(일)까지 11일간을 “특별교통대책기간”(이하 대책기간)으로 지정했다.
    - 대책기간 중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·귀경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“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”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.
  - 올해 추석은 연휴 기간이 늘어나, 총 이동인원은 작년보다 8.2% 증가한 3,218만 명(‘24년, 2,973만 명)으로 예상되나,
    - 긴 연휴 기간 이동인원 분산으로 일 평균 이동은 작년보다 2.0% 감소한 775만 명(‘24년, 791만 명)으로 전망된다. 이동 할 때는 대부분 승용차(84.5%)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.
  - 귀성객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고속도로의 일 평균 통행량은 이용객 분산으로 작년보다 2.4% 감소한 542만 대로 예상된다.
    - 다만 최대 통행\*이 예상되는 추석 당일은 귀성·귀경객, 성묘객 등 집중 영향으로 작년(652만 대)보다 2.3% 증가한 667만 대로 전망된다.
- \* (최대 통행량 추이) '05년 281만 대 → '15년 527만 대 → '25년 667만 대
- 주요 도시간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은 10.5(일), 귀경은 10.6(월) 나타나며, 귀성방향은 작년보다 소요시간이 다소 증가하나, 귀경방향은 긴 귀경기간(최대 7일)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\* [귀성,10.5] 서울 ⇒ 부산(‘24년 08:05 → ‘25년 08:10), 서울 ⇒ 목포(‘24년 06:25 → ‘25년 06:50)  
[귀경,10.6] 부산 ⇒ 서울(‘24년 10:30 → ‘25년 09:50), 목포 ⇒ 서울(‘24년 10:00 → ‘25년 09:10)

〈 '25년 추석 통행실태 조사결과(한국교통연구원, 8.22~28, 9,911명 설문조사) 〉

- (귀성 출발 선호) 추석 전날(10.5, 일), 추석 당일(10.6, 월) 오전(각각 14.8%)
- (귀경 출발 선호) 추석 다다음날(10.8, 수) 오후(16.4%)
- (여행 수요) 국민의 40.9%가 여행 계획(국내 89.5%, 해외 10.5%)

※ 설문조사를 통한 출발일 등에 대한 선호 결과로, 실제 이동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□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교통대책의 추진과제로 ①교통소통 강화, ②이동 편의·서비스 확대, ③교통안전 확보, ④대중교통 증편, ⑤기상악화 등 대응 태세 구축을 설정하였다. (☞ 세부내용은 참고파일 첨부)

① (교통소통 강화) 고속·일반국도 274개 구간(2,186km)을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하여 차량우회 안내 등 집중 관리하고, 고속도로 갓길차로 69개 구간(294km)을 운영한다.

○ 설 명절 이후 국도 12개 구간(92km)을 개통하고, 경부선 양재~신탄진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를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운영(10.4~9, 21:00→01:00)한다. 또한 모바일 앱·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통소통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.

② (이동 편의·서비스 확대) 추석 전·후 4일간(10.4~7)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운전자 휴식 보장을 위해 졸음쉼터·휴게소를 추가 운영한다. KTX·SRT 역귀성 요금을 할인하고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철도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시범 설치한다.

○ 공항 혼잡도 완화를 위해 출국장을 조기 오픈(최대 60분)하고 주요 포털에 실시간 대기상황을 공개(인천공항T1)한다. 또한 공항 및 여객선 터미널의 임시주차장도 확보한다.

③ (교통안전 확보) 도로·철도·항공·해운 등의 교통시설·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시행 중이다.

○ AI 기반 교통사고 위험구간 관리(위험구간을 선정하고 도로전광판에 경고문구 표출)를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안전띠 착용여부(전좌석) 감지시스템을 운영한다. 고속도로 순찰영상을 AI 분석 후 법규 위반차량(지정차로 위반, 적재불량 등)에 대하여는 공익신고할 예정이다.

- ④ (대중교통 증편)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·철도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5.2%(36,687회), 11.9%(208.4만 석) 늘린다.
- ⑤ (기상악화 등 대응태세 구축) 집중호우 등 극한 상황에 대비하여 취약 시설물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, 수해복구 자재·장비를 사전 확보한다.
- 기상 악화시에는 열차 서행, 항로 우회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다. 또한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대피콜을 실시한다.

〈 지난 해 대책 대비 추가된 내용 〉

- [교통소통] 혼잡도로 관리구간 확대(217개→274개), 국도 개통(12개 구간, 92km, '25년 설 명절 이후)
- [이동 편의·서비스] (철도) 코레일앱에서 지역축제 캘린더 서비스, 교통약자 지원 자동 발매기 시범 설치(서울역), (항공) 인천공항T1 실시간 대기상황 공개(네이버), 공항 실내지도 (상업·편의시설 등) 서비스 확대, (도로) 졸음쉼터·휴게소 추가 운영(5개, '25.1월 이후)
- [교통안전] AI 기반 사고 위험구간 관리 확대(14→30개소), AI 활용한 안전띠 착용 감지 시스템 운영(서울TG), 고속도로 순찰영상 AI 분석후 법규 위반차량 공익신고

- 아울러, 안전 귀성길을 위해 추석 전 4일간(9.29~10.2)에 환경부, 경찰청, 한국교통안전공단,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 21개소에서 교통안전 실천 캠페인을 실시한다.
- 또한, 추석기간에 무조건 안전띠 착용 등의 JTBC 홍보영상(10.8 방영), YTN 교통안전 1분 'Talk' 방송 등 '오늘도 무사고' 캠페인도 실시한다.
-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“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·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 주실 것”을 당부하며,
- “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,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 안전 정보를 확인해 주실 것”을 강조하였다.

※ 자세한 사항은 참고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종합교통정책관 교통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배석주 (044-201-3804)
		담당자	서기관	최효준 (044-201-3786)
			주무관	권희만 (044-201-3793)
담당 정책 <교통안전>	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유진 (044-201-3230)
		담당자	사무관	안규영 (044-201-3867)
<버스>	종합교통정책관 교통서비스정책과	책임자	과 장	나진항 (044-201-3823)
		담당자	사무관	박삼범 (044-201-3824)
<도로>	도로국 디지털도로팀	책임자	과 장	허나운 (044-201-4130)
		담당자	사무관	정광성 (044-201-4135)
<철도>	철도국 철도운영과	책임자	과 장	강 욱 (044-201-3970)
		담당자	서기관	임상준 (044-201-4631)
<항공>	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영혜 (044-201-4204)
		담당자	사무관	김동현 (044-201-4184)
공 동 <해운>	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	책임자	과 장	신재영 (044-200-5730)
		담당자	사무관	이종훈 (044-200-5733)

